

케이블카 설치싸고 명산 '몸살'

한라산·지리산·미륵산 이어 설악산도 분쟁

지자체 "세수증대" 환경단체 "생태파괴" 맞서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민족의 명산인 한라산과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유명산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사이의 논쟁이 뜨겁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세수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에 적극적이다. 반면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가 들어오면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세워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케이블카 설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 4곳과 신불산, 미륵산, 천황산 등 도립, 군립 공원을 합해 모두 10여곳에 이른다.

최근 용화사의 경내지 수용문제와 관련해 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통영 병꽃나무 서식지인 용화성지 미륵산의 경우 통영시가 지난 8월 16일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9월 초순 입찰업체의 설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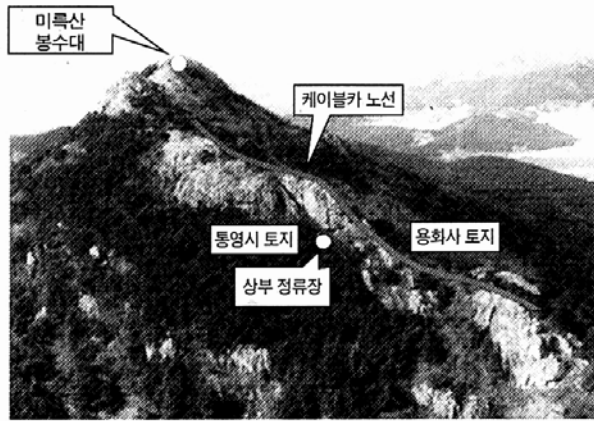
이에 맞서 시민환경단체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케이블카 하차장 주변에 소유토지를 가진 용화사 주지선곡스님은 7일 오후 1시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환경위원회(위원장 성태)에 출석, 미륵산 케이블카와 관련한 현황보고를 통해 케이블카 반대입장을 재천명할 예정이다.

불교 남방전래설을 간직한 한라산의 경우 제주도가 환경부에 케이블카 허가신청을 낸 지난 2월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를 비롯한 도내 22개 종교·환경·시민단체 등은 케이블카 추진절차의 공정성을 따지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용역 및 도민여론조사에 들어간 혐세의 환수투쟁까지 벌여왔다고 밝히면서, 환경부의 최종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설악산 역시 강원도 양양군이 오색-대청봉을 잇는 4.5km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중이어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하고 낙후된 오색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망대를 갖춘 환경친화적인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숲을 파헤치고 나무들을 베어내야 하는 등 설악산 생태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 구례군도 산동면 온천랜드-성삼재-노고단을 잇는 지리산 4.8km구간에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올 10월말 완성을 목표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를 의뢰해 놓았다. 이에 대해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상임대표 수경스님)은 "지리산의 케이블카 설치와 골프장, 호텔 유치



◇통영 미륵산의 케이블카설치 예정경로.

등 모든 개발을 중지하라"며 지리산을 특별생태보전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 경남도와 밀양시가 천연기념물 제 224호인 얼음굴을 경유해 천황산 정상에 연결하는 3-5km의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고 있고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어우러진 남해 금산과 울산 신불산, 부산의 달음산 등도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줄다리가 계속되고 있다. 또 전남 영암군은 월출산에 94억원을 들여

케이블카를 건설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98년 4월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신청해 환경단체와 오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두대간에 대한 조사, 생태계 및 불교문화 보전을 주요 사업으로 펼칠 예정인 불교환경연대(총)는 9월 6일 창립과 함께 케이블카 설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산들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가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차암련 회향에 듣는다

"연꽃축제 통해 불법 널리 전파"

무안사암련 경훈스님



"무안(務安)이라는 지명 자체가 불교에서 나온 것이고 승달산(僧達山), 발산동(鉢鉢洞) 등 무안에는 불교에서 나온 지명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안이 원래 불교와 가까웠던 땅이라는 증거입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무안연꽃축제가 무안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꽃을 보러 오는데 불교를 상징하는 깨달음의 꽃 연꽃을 통해 불교를 포교하는 방안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무안사암련회 회장 경훈(慶勳) 스님(약사사 주지)은 무안연꽃축제를 전국민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암련 스님들이 마음을 합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8월 25-28일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금강삼매경 읽기 생활화

양한 계층 포교를 위해, 스님이 최근 번역 출간한 <금강삼매경>을 매개로 '금강삼매경 독송회' 조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강삼매경 읽기를 생활화하여 불교사상으로 우리 사회를 밝고 맑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도 금강삼매경 독송회 지부를 두어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녀 갔다는 무안사암련 집계 나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데에는 크게 핀 연꽃 외에도 무안사암련 스님들이 전통사찰음식 시연회, 탁본현장 체험, 연화 및 달마도 전시, 다도, 제등행진 등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행사를 기획해 호평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안은 예로부터 중국과의 교역지역으로 최근 해양문화시대를 여는 길목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청 이전과 공항 건립 등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무안의 발전 청사진에 맞춰 경훈 스님은 지역 불자들의 교육갑증을 채워주고 다

무안사암련 28개 사찰이 모여 7년전에 창립했다. 매달 1차례씩 모여 친목도 다지고 포교방안도 논의하며 교도소와 군부대 등에도 정기 위문을 간다. 경훈 스님은, 다른 군과 달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골고루 있는 무안군의 특색에 따라 포교대상이 무궁무진하다는데 스님들이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불교를 쉽게 널리 알릴 수 있을까 늘 의견을 나눈다고 귀띔한다. 경훈 스님은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환희심을 느끼도록 힘을 보태고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 = 이경숙 기자



◇8월28일 열린 영주 장애인복지관 개관식.

영주 장애인복지관 개관

경북지역 불교계 첫 장애인 복지관인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현, 관련 인터뷰 4면)이 8월 28일 개관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5월 위탁 받은 이 복지관은 영주시가 1999년 12월 착공,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년 만에 초현대식 건물로 건립돼 문을 연 것이다.

부지 326평,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5평 규모의 복지관에는 물리치료실, 보호작업장, 정보실, 방과 후교실, 컴퓨터 교육실, 상담실, 직업적응 훈련실, 조기교육실,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등이 들어섰다.

영주 봉화 사암련연합회가 운영을 맡은 복지관은 영주시에 등록된 3천 3백여 장애인 외에도 안동, 봉화, 장수 등 인근 지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단, 판정,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재활사업, 재가복지,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은 고운사 회주 근일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양산스님,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안동사암련연합회장 일우스님, 영주봉화사암련연합회장 정진스님, 박시군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오종국 기자

천성산 늪지 보전지구 추진

식생조사·시민토론회도

천성산 습지보전 및 임도개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지용스님)는 심각한 생태계 파괴에 직면했던 천성산이 양산시와의 협의로 임도 복구 추진을 가둔다. 화합을 위한 자연생태보전지구 혹은 습지보전지구

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에 돌입했다. 양산시와 보전대책위는 비로봉을 중심으로 한 2.2km 구간에 대한 복구를 협의하면서 구간의 식생조사결과와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보전대책위는 복구책 마련과 함께 천성산을 자연생태보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7일 천성

산 습지보전 및 임도복원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양산=천미희 기자

범어사 20일 문중총회 차기주지 선출 논의

범어사 종무협의회와 운영위원회는 8월28일 휴휴정사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차기 주지 선출과 관련된 오는 20일 문중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종무협의회 회장 홍교스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증원스님을 비롯 2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20일 문중총회를 개최하고 이날 차기 주지 선출과 관련된 후보자 지명, 산중총회일 공고 등 모든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무량종 연수교육 실시

대한불교 무량종(총무원장 혜안)은 13-15일 2박3일동안 총본산 지리산 칠보정사에서 중반 산하 각 사암 스님들과 포교사, 강건주 등을 대상으로 2001년도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동안 스님들을 대상으로 법계교시가 실시될 예정이다. (055)883-7771

이경숙 기자

"소외된 이에 재활꿈 심어요"

부산 늘푸른 교육원 실직자녀 무료교육

불교사상을 근간으로 인경, 환경, 문화, 교토, 복지, 교육 등의 개선을 추구하는 늘푸른세상(회장 황국근)이 3일 부산 평생교육원 늘푸른문화교육원(원장 이미경)을 개원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부산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원 허가를 받은 늘푸른문화교육원은 실직자 자녀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된다.

늘푸른문화교육원은 3일부터 실직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도예교실을 개강하는 것을 비롯 영어, 미술, 수학 교실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초·중·고교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도예교실은 복구 교육청 관내의 초·중·고교에서 실직자 자녀들을 추천받아 반죽, 흙가래, 투각, 분청, 상감 등의 기법과 전기물레를 이용한 성형, 굽기, 초벌 등의 전 과정을 체험하게 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박희준 식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3월이면 레이키요법(氣療)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사랑과 빛이 담겨있는 우주의 생명 기운(에너지)입니다. 이것을 바로 끌어다가 질병도 치료하고 생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을 3월이면 하는 것이 레이키요법입니다.

단 3일간의 교육으로 이런 능력자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만1천)
 -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침구사 포함), 호스피스 봉사자, 간병봉사자
 - 만성병 환자, 성인병 환자, 그 가족
 - 임신, 태교, 순산을 원하는 부녀자나 그 남편
 - 마음의 평화와 정신의 각성을 원하는 분
 - 활동력자로서 활동하려는 분등
-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 들면 전반적으로 기운과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레이키 요법은 이같은 기운과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 병이 낫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레이키 요법은 세계에서 제일 효과가 높은 리베이션(정신)을 잘 하게 하는법입니다.
-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병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가족(유학)을 가 있는 자네에게도 여기서 먼데(원격치료를) 해주고 기운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시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인정증을 발행합니다. 박희준씨는 국제레이키 마스터 명단에 올라있는 한국 유일의 레이키 마스터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의 레이키에 있어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올 바론 레이키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증명서가 됩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 경음전화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여해빌 5호선 시대문예 5번 출구에서 경음전화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뒤편 건물)
핸드폰 (019)392-2557, (018)850-1680

와 선 [어린이 잠가득 누워야는 잠선④]

피부, 근, 관절, 신경이 완전히 이완되고 전신에 기운이 확장 상태로 단전호흡, 수송회강이 저절로 되며 신비롭고 환희로우며 또렷또렷한 상태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의 와선상태를 단 시일에 체감하게 됩니다.

3박 4일 기도수행

- 호흡에 맞춰 걷는법 (호흡호 호흡법)
 - 50이상 예약하시면 날짜 시간 관계없이 잘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강경 독경, 서기오니를 영음, 부처님 김사 수행
 - 아침예불(5시-7시) 저녁예불(8시-10시)에 동참하시면 자세법, 호흡법, 운율법, 지동영법법에 의한 신명나고 리드미컬하고 박력있고 유희치며 가슴이 열리고 코이트이고 단전이 열리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수행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 일시 : 수시로 언제나, 세면도구

3333배 특별 철야 용맹정진

▶ 일시 : 8월 9일 22일 토요일 저녁 7시 - 일요일 아침 7시
▶ 준비물 : 두꺼운 기도수건 2대, 두꺼운 면양모, 면 2대, 세면도구

백만불사 108배 만일경사 음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문의전화 031)771-7745 · 6736 (Fax겸용)
○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중점 하차 전차요

수행전문사이트
http://cafe.daum.net/sorisan/

한국전통불교 연구원 학당 개설 제1기 연구생 모집

강의 시간표

요일	교재	강사	강사 약력
월	조망정	일지법사	제1회 백민학술(88)수상 (주)龍華문화관광 부장, 사단법인 법서원 총과대학 교수 도시문화인문학사 주관으로 일방
수	명자	이상화	민족문화추진회 국학연구원 총장, 삼립연구원 책임, 고려대학교 목석사경주교, 한세 민족문화추진회 국학위원
목	불교와노자	해거스님	금강선원 주지
금	논어	공근식	민족문화추진회 삼립연구원 책임, 경북대, 제법대 강사 역임, 한세 민족문화추진회 국학위원

- ▶ 시 간 : 오후 7시 30분 ~ 오후 9시 30분
- ▶ 장 소 : 금강선원 법당
- ▶ 수강료 : 강좌당 4개월 8만원
- ▶ 입학식 : 2001년 9월 8일 토요일 오후 7시
- ▶ 문 의 : 02)445-8484, 445-4873

금강선원 강의

영가집(永嘉集) 강의

- ▶ 강 의 : 9월 4일 개강, 4개월간
- ▶ 시 간 : 매주 화요일 13:30 - 15:30

14기 불교교리 강의

- ▶ 강 의 : 9월 5일 개강, 3개월간
- ▶ 시 간 : 매주 수요일 10:30 - 15:30

금요법외

- ▶ 교 재 : 법외경
- ▶ 강 의 : 9월 7일 개강
- ▶ 시 간 : 매주 금요일, 10:30 - 10:0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늘 그리운 사람

버들강아지 이망울 띄우고 풀잎끝 작은 숨결
해맑은 동자승의 자비심으로 그대 가슴에 온기를 더할래
우연히 만난 그사람 내 생애 있어 최상의 동반자였다.
시간의 길 밖에서 사랑하게 된 그를 함께 있어 늘 그리워 하며...



원장 이영숙 합장

▷ 위치: 안내 1호선 영등포역 하차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입구 직진 200m 정도에 오면 우측으로 파란색 간판 레스토랑(마음과마음)을 약간 지나 맞은편 좌측 골목 함림 빌딩 2층 204호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
대표전화 : (02) 679-5902